

LG전자, OLED TV에 CFRP 채용

55인치 무게 17kg으로 초슬림·초경량 ... IFA 2013 앞두고 독일 런칭

LG전자(대표 구본준)는 9월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3>을 앞두고 곡면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TV를 유럽에 판매한다고 8월25일 밝혔다.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주요 국가에 순차적으로 곡면 OLED TV를 출시하기 위해 8월28일 프랑크푸르트의 최고급 가전매장인 HIFI Profis에서 런칭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LG전자는 한국, 미국에 이어 유럽에도 곡면 OLED TV를 출시함으로써 차세대 OLED TV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굳힐 방침이다.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는 세계 OLED TV 판매량이 2017년 900만대를 넘어서고 유럽이 판매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LG전자가 공급하는 55인치 곡면 OLED TV는 자체 개발한 WRGB(White Red Green Blue) 방식으로 깊고 풍부한 색 표현이 가능하고 오목하게 휘어진 화면이 최상의 몰입감을 제공한다.

고강도 초경량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두께 4.3mm에 무게 17kg에 불과하며 초슬림·경량 디자인이 특징이다.

TUV Rheinland, 독일전기기술자협회(VDE) 등 세계적인 인증기관에서 2D·3D 화질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루카스 필름에서 주는 THX(Tomlinson Holman eXperiment) 디스플레이 인증도 획득했다.

<화학저널 2013/08/26>